

만남

신년특집

01

2022

통권 575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새 희망의 빛을 비추는 성탄트리 점등식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2021 영락교회 성탄트리 점등식’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 지난 11월 28일 찬양예배 직후 베다니광장에서 열렸다. CebC와 중·고등부 연합찬양대의 찬양이 어우러진 가운데, 축제 분위기 속에 진행된 점등식에서 김운성 목사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두루 밝혀 주신다”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희망이 우리 이웃에게 널리 전해지는 성탄이 되길 바란다”고 기쁨과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불을 밝힌 성탄트리는 2022년 1월 8일까지 베다니광장에 설치되어 성탄과 송구영신의 새 희망의 빛을 비춘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박영학 은퇴집사

교회표어

행진하여 가라
(신명기 1:6~8)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5대 본질



CONTENTS

이달의 말씀 02 행진하여 가라 김운성

신년특집 05 영락 오이코스 박지운
07 세상 속에서 행진하는 그리스도인 이학영
10 다음세대, 새해를 주님과 함께! 중·고·대·청
14 행진하라! 영락청년공동체 박종훈

기획연재 16 에베소, 사도 바울의 핵심 선교지 유주순

다음세대 21 나노사회와 공동체적 연대 이준영
24 말씀을 삶에서 고백하는 믿음의 훈련 이성연
26 사랑해요 CebC, 사랑해요 영락모자원 송승호
28 웹툰 <주님과 같이해요!> 이화선

땅끝까지 이르러 30 영락교회 베트남예배를 소개합니다 규옥투안
32 미래를 꿈꾸는 행복한 학교 유인선

영락의 울타리 35 호산나찬양대 56년의 시간 정우영·김은덕
38 새가족을 위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주세요 장민희
40 저에게 찾아온 긍정적인 변화 김지유
42 따뜻한 나눔, 행복한 공동체 김희진
44 식품 알레르기 임대현
46 죽음의 성경적 이해 이현우

문화광장 49 설교와 설교자 강승훈
50 진리와 말씀으로 돌아가자 정현성
52 아름다운 동행 김갑수

교회소식 53 교회창립 76주년 행사
54 장로 장립 및 집사 안수 명단
57 이임교역자 / 은퇴함존직 명단
60 1월 목회력 / 김윤재의 함께해보아요

표지설명



〈영락 오이코스〉를 따라 말씀과 기도로 행진하는 신앙공동체의 힘찬 모습을 표지에 담았습니다. 영락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일러스트 김윤재 집사

행진하여 가라

김 운 성 위임목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겟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신명기 1:6~7)

코로나19가 지구촌을 덮친지 3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과 상관없이 온 세상에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는 2022년 앞에 있습니다.

2022년도 만만치 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듯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넉넉히 이겨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하기를 원하고, 가정에는 웃음꽃이 피며 일터에는 풍성한 일감과 일의 보람, 수고의 대가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섬길 때와 그 후 얼마 동안은 고센에서 편안히 살았겠지만, 그 이후의 긴 세월을 애굽인의 노예로 고통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고, 모세

를 보내 하나님의 편 팔과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고 수르 광야와 르비딤을 거쳐 3개월이 될 때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그 이듬해 둘째 달 스무날에 그곳을 떠나기까지 오랜 시간 머물면서 안식했습니다. 그곳에는 시내산이 있는데, 일찍이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중에 나타나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면 그들에게 복이 될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인지, 또한 백성들 상호 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등을 가르치셨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할 거룩한 장소를 구별하여 세우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양식대로 성막을 만들어 봉헌한 것은 이듬해 정월 초하루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아래서 수백 년 만에 달콤한 안식을 누렸고, 장차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에서 살아갈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달콤한 꿈에 취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을 떠나 출발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지명을 말씀하시면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고 하셨습니다. 시내산 아래서의 삶이 아무리 달콤해도 그곳에 계속 머물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가 가나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가려면 시내 광야를 과감히 떠나야 했습니다. 위대한 미래를 위해 오늘의 안락함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행진하여 가는 과정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시간

바로 이 말씀에서 영락교회의 2022년 표어를 가져왔습니다. 말씀 중의 두 단어를 골라 모아 ‘행진하여 가라’는 표어를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신다고 확신했습니다.

행진하여 가는 것은 오합지졸들이 흠어지는 것과 다릅니다. 질서정연하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의연하고 당당하게 행진곡을 울리면서 가는 것입니다. 영락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손가락을 바라보며 전진하길 원합니다.

행진하여 가는 목적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갔듯이 우리도 영락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야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더 풍성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행진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행진하여 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광야를 걷는 수고를 각오해야 합니다. 메마른 곳, 잠자리가 불편한 곳, 돌부리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을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도 행진하여 가려면 많은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각오해야 합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황홀한 중에 말한 것처럼 “여기가 종사오니”라는 생각은 내려놓고, 전진해야 합니다.

행진하여 가는 과정은 힘들었으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으며, 아모리 족속을 비롯한 여러 적과 맞서 승리했습니다. 본래 가나안은 요단강 서쪽을 말하는데, 뜻밖에도 요단강 동쪽에서도 땅을 얻었습니다. 영락교회도 행진하여 가는 동안 가만히 있으면 경험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2022년을 기점으로 영락교회가 행진하여 가길 원합니다. 각자의 인생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행진하는 기쁨의 부산함이 있길 원합니다.

〈영락 오이코스〉를 따라

말씀과 기도로 행진하는 2022년

당회는 행진하여 가야 할 목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락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

의 실현을 위해 지속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써야 합니다.

아울러 영락교회가 성경적 교회로 철저히 하고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365>에 이어 2022년에는 <영락 오이코스>를 진행할 것입니다. 본래 ‘오이코스*’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헬라어 단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집, 가정이란 의미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오이코노미야’는 경륜을 말하는데, 청지기가 집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위해 교회와 열방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오이코노모스’는 집을 돌보는 청지기를 말합니다. 영락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가정과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중심으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온 교회가 <영락 오이코스>를 따라 말씀과 기도로 ‘오이’, 즉 52주간, 365일을 행진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와 사회의 빠른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미래를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창립 80주년위원회>를 구성하여 달려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섬김과 선교를 통해 교회와 세상에 흘려보낼 것입니다.
- 코로나19 이후 급변한 신앙생태계를 고려하여 오프라인교회를 보완하는 디지털 영역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 사랑부 친구들의 삶과 작업을 위한 공간을 세우고자 합니다.
- 양산중앙교회와 정지훈 목사님을 통해 주신 기회를 선용하여 1만 5천 세대 대단지에 교회를 개척하고자 합니다.
- 한경직 목사님 평전을 출간할 계획입니다.
- 누구나 베다니광장을 오가며 심을 얻도록 삼일로 방향으로 대문 없는 출구를 내려합니다. 이는 영락교회를 열린 교회로 만들 것입니다.
- 성도들, 특히 젊은 성도들의 만남과 모임의 공간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려 합니다.
- 미래 공간 확보를 위해 획기적인 계획을 추진할 것입니다.
- 교역자 사택을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준비할 것입니다.
- 이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할 조직을 만들고 운영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영감으로 미래를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는데 우리가 따라야 할 몇 가지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순리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쁨의 축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영락교회에게 주신 오늘과 내일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모든 성도가 행진하여 가길 원합니다. 고여 있는 물은 아무리 맑고 맑아도 썩습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은 적어도 생명을 운반합니다. 성도님들과 영락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흐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남**

* 오이코스는 공적영역인 폴리스(polis)에 대비되는 사적 생활단위로서의 ‘집’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출처: 두산백과)

영락 오이코스(oikos)

52주 가정예배를 중심으로 365일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생활

이 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창세기 28:17)

지난 2년, 갑작스러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모두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22년을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까닭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암울한 시대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

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영락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 <말씀대로 365>를 진행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상보다 더 크신 은혜로 날마다 풍성한 영의 양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 치 앞길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네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의 갈 길을 환히 비추는 등불 되시는 주님의 말씀뿐임을 고백합니다.



박지운 목사
고양·파주교구
목양부

우리는 이와 같은 소망으로 2022년 한 해도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해 <영락 오이코스>를 진행합니다.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차원적으로는 ‘52 course(52주 과정)’라



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는 52주 동안 예배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우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헬라어 ‘오이코스(oikos)’라는 단어는 ‘가족·가정·집’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인 가족 공동체에 예배를 통해 회복하고자 하는 의

미를 담았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오이코스, 하늘의 참된 가족 공동체인 영락 성도들의 예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영락 오이코스’는 개인의 묵상과 신앙성숙을 넘어 공동체, 특히 가정에서의 예배를 회복하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특징 중 하나인 개인주의가 코로나 19라는 비대면 상황을 맞으면서 교회의 공동체성이 급격히 약화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너진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을 뿐 아니라, 왜곡된 성관념으로 인해 가족의 개념마저 붕괴되는 사회적 문제들로 심각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함은 시대적 소명입니다. 개인의 회복이 예배의 회복을 통해 이루어지듯이, 가정과 공동체의 회복 또한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락 오이코스〉 어떻게 참여하나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 묵상집과 위임목사님의 묵상 영상이 제공됩니다. 말씀 묵상집은 매주 한 가지씩 52가지 실천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동시에 작년처럼 1년 동안 성경일독을 할 수 있도록 성경읽기표가 제공되므로, 작년에 제공된 성경 개관을 활용하시면 더욱 유익할 것입니다.

주일에는 가정예배 양식이 제공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부목사들의 설교만 제공하는 ‘설교 영상’과 예배 전체영상을 제공하는 ‘전체영상’ 두 가지 버전이 제공됩니다. 가족 구성원이 예배의 순서를 맡아 예배를 진행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가정은 책자에 실린 양식에 따라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이후의 순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성원의 인도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가정이나 단독세대(1인 가구)인 경우에는 전체예배 영상을 통하여 영락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리시면 됩니다. 구역 등의 소그룹 모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설교 영상’을 활용하셔도 유익할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은 같은 본문을 바탕으로 구성한 교회학교용 〈패밀리데이〉 책자를 병행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증사진을 보내주세요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 구역원, 소그룹 등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홀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을 교회에 제출하시면 추첨을 통해 격려의 선물을 드립니다. 제출하신 사진은 만남지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예배 전후 슬라이드 영상으로 송출

하여 공동체의 기록으로 남길 것입니다. 인증사진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① 자녀가 교회학교에 속해 있는 경우는 교사나 부서 전도사에게 제출합니다.
- ② 구역에 속하신 분은 구역장이나 교구 전도사에게 카카오톡으로 제출합니다.
- ③ 이메일이 편하신 분은 oikos@youngnak.net으로 보내주세요.
- ④ 설교 영상이 있는 페이지에서 바로 찍어서 올리셔도 됩니다.

매일 묵상과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은혜와 감사를 〈한줄은혜나눔〉에 나누어 주세요. 제출방식은 이전과 동일하게 교회 곳곳에 비치된 용지를 이용해 준비된 상자에 제출하셔도 되고,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기록하셔도 되며 책자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제출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오이코스, 하나님 집의 구성원으로서 날마다 우리 주님을 마주 대하며, 예배를 통해 자신과 가정, 공동체의 회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참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진리의 등불, 말씀의 횃불을 들고 대장 되시는 주님과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 다 함께 행진해 나아가는 성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만남**

▶ 가정예배영상



◀ 한줄은혜나눔



세상 속에서 행진하는 그리스도인



나는 5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모태신앙을 갖고 살아왔다. 나의 할머니는 일찍 기독교를 받아들인 가문에서 성장한 후, 믿지 않는 할아버지와 결혼하여 우리 집안을 기독교 가문으로 일궈다. 안동교회(서울 종로구 안국동 소재) 권사이셨던 할머니는 손주들이 잘못해 야단치실 일이 있거나 기운이 빠져있어 힘을 북돋워줘야겠다 싶을 때면 직접 입을 여는 대신 가정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다. 훈계나 권면의 말씀을 그에 맞는 성경

구절을 통해 들려주셨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등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탄 근심 있으랴~” 등 찬송가를 부르시던 목소리가 귀에 선하다.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던 42년 전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그 찬송가들을 부를 때면 할머니 생각에 눈물이 글썽이고 목이 메어 제대로 곡조를 잊지 못한다.

이러한 신앙 배경에서 성장한 나는 기독교 신앙의 정통성을 지녔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주일에도 출근해야 했던 직업 특성으로 인해 교회 봉사는커녕 주일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가 많았지만 “어쩔 수 없는 직장생활 탓”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러면서도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모태 기독교인임을 대놓고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로지 말 뿐, 신앙인이 마땅히 지켜야 할 겸손·봉사·나눔 등의 계



이학영 집사
주님의교회
한국경제신문 논설고문

명은 갈수록 내게서 멀어져갔다.

십일조의 의미를 일깨워준 친구

‘무늬만 기독교인’으로 퇴락해가던 내게 정신이 번쩍 나게 일깨워 준 사건이 일어난 건 30대 중반 무렵이었다. 메리 하비(Marry Harvey). 1996년 가을 미국 뉴욕의 컬럼비아대학 교정에서 만난 그를 나는 잊지 못한다. 매사추세츠주 출신 여성 메리는 나에게 영어회화를 자원봉사로 가르쳐준 언론대학원(저널리즘스쿨) 동급생이었다. 하지만 그가 내게 가르쳐준 건 영어회화만이 아니었다.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선물했다.

그해 8월, 컬럼비아대 저널리즘스쿨에서 공부하기 위해 뉴욕에 도착한 나는 정식 개학에 앞서 개설된 특강부터 수강하기로 했다. 그런데 웬걸, 첫 시간부터 교수의 강의 내용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영어를 구사한다고 생각했지만, 귀머거리 신세를 면치 못할 판이 되자 몹시 당황스러웠고 혼란에 빠졌다.

주임교수에게 솔직하게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했다. 교수는 학생 중에서 나와 같은 외국인인을 위해 영어회화 도우미를 맡을 자원봉사 희망자를 찾아보라며 등을 두드려줬다.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 메리였다.

메리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교정의 벤치에서 만나 오후 4시까지 자연스런 대화를 통해 나의 듣기와 회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뜻하지 않게 시작된 ‘화요 데이트’는 가을학기가 끝난 크리스마스 직전까지 계속됐다.

메리 선생님으로부터 무료 과외를 받기 시작한 첫날, 그는 작은 수첩하나를 꺼내들고는 나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이런저런 메모를 했다. 그리고

는 첫 만남을 마치며 수첩을 건네줬다. 수첩은 부적절하게 표현된 나의 어휘, 정확하지 않게 들린 발음 등을 꼼꼼히 체크하고는 ‘정답’을 적은 것들로 채워져 있었다. 메리는 이후 나와 만날 때마다 ‘수첩 지도’를 계속했고,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가르치는 보람이 있네”라는 농담까지 해가며 나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줬다.

그러던 어느 날, 나를 만난 그가 몹시 힘들어했다. 학교 수업을 따라가느라 잠잘 시간조차 제대로 없다는 푸념과 함께. “Three-hour sleep, you may pass. But four-hour sleep, you should fail”이라는 말도 했다. 우리말로 하면 3당(當) 4락(落). 그러니까 하루 세 시간 정도만 잠을 자며 공부에 매달려야 학업 진도를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였다.

그걸 만도 한 게, 컬럼비아대학의 저널리즘스쿨은 강의 규율이 엄격하기로 소문나 있었다. 저널리즘스쿨 입학식 때, 대학원장의 환영사 첫마디가 “저널리즘 분야의 웨스트포인트에 입학한 것을 환영합니다! Welcome to the Westpoint of Journalism!(군기가 세기로 유명한 웨스트포인트-미국 육군사관학교-에 빗댄 얘기)”이었을 정도다.

게다가 컬럼비아대 저널리즘스쿨은 한 학기에 15학점씩, 1년간 30학점을 따면 1년 만에 석사학위를 주는 스피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메리는 당시 한 학기 등록금이 1만1600달러로, 웬만한 주립대학(평균 3500달러)의 세 학기와 맞먹을 정도로 비쌌던 컬럼비아대 저널리즘스쿨을 빨리 졸업하고 싶어 했다.

시간을 쪼개 써야 할 만큼 바쁜 그가 나를 위해서 매주 두 시간씩 금쪽같은 시간을 내주고 있다니! 미안해진 나는 그에게 “그렇게 아까운 시간을



왜 나에게 쓰고 있는가?”하고 물었다. 그때 나에게 돌아온 그의 대답이 한동안 나를 멍하게 했다. “당신도 크리스천이라고 했죠? 그럼 십일조가 뭔지 알죠? 당신은 돈으로만 십일조를 하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의 10분의 1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도 미안하고 부담스런 표정을 지우지 못하고 있던 나에게 메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들려줬다. “사실, 십일조를 제대로 지키려면 1주일이 아니라 매일 두 시간씩 당신과 만나 도움을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오히려 내가 미안하죠. 이번에 못다 쓴 봉사 시간은 이다음에 내가 여유가 생길 때 더 많은 봉사를 하는 걸로 꼭 채울 겁니다.”

세상 속에서 행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뵤싸! 메리는 내게 단지 영어만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었다. 나보다 열 살가량 아래였던 그로부터 나는 큰 쇠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과 함께 큰 깨달음을 얻었다. “맨 손으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사회로부터 받은 게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내가 속한 사회, 이웃들을 위해 무엇을 돌려줘왔는가.” 생각해 보니 거리에서 도움을 요구하는 손길들에 어찌다가 몇 푼을 쥐어주고, 연말 구세군 냄비에 얼마간의 돈을 집어넣는 걸로 ‘면피’를 하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는가.

메리가 일깨워준 ‘시간의 십일조’는 미국에 자원 봉사자들이 많은 이유를 알게 해줬다.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깊은 미국인들에게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에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다. 시간뿐이 아니다. 미국인들에게는 각자가 가진 재능(달란트·talent)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므로, 최소한 10분의 1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곳에 써야 한다는 신앙관이 자리 잡혀 있다. 변호사들의 무료 법률상담과 의사들의 의료봉사 등 ‘프로보노(Pro Bono: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돕는 활동)’가 미국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퍼져 나간 까닭도 이해하게 됐다.

메리와의 만남은 여러모로 내게 큰 깨달음을 줬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이후 읽게 된 성경구절에서 진정한 헌신의 뜻을 더 깊이 새기게 됐다.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잠언 3:27)’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2)’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로마서 12:10~13)’. **만남**

다음세대, 새해를 주님과 함께!

- 영락의 다음세대가 들려주는 새해 소망



중등부

작년은 코로나로 인해 기대했던 것보다 친구들을 많이 만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간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이제 중3이 되었는데 1살 더 먹은 만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도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고 싶어요. 2022년 새해에는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수련회도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고 싶고, 친구들과 함께 워십도 하며 뜨겁게 예배드리고 싶어요.

- 최세아 학생(중등부)

지난해는 코로나와 여러 가지 오해들로 인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모습으로 맞서 싸우기보다는 'Dignity as a Christian!' 기독교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복음을 선포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도 우리 중등부가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 김은영 교사(중등부)

새해엔 코로나가 물러가기를 바라며 대면 예배의 활성화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던 수련회와 아웃리치, 그루터기 활동, 비전트립 프로그램이 정상화되고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여 생동감 있는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디지털 시대 예배의 질적 향상을 위해 영상장비의 현대화를 소망합니다. 교육부 전체의 방송영상 장비를 체크하여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는 것도 다음세대를 위한 투자라 생각합니다.

- 김지언 장로(중등부장)

고등부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이 제한되었던 학교생활이 새해에는 코로나가 줄어들고, 고3 친구들은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여 다들 즐거운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예배로 많이 나타해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새해에는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 김가은 학생(고등부)

새해에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을 더 생생히 느끼고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마음속으로 걱정하고 사람에게 요청하며, 주변의 사람들에게 계락과 지혜로 응답한 것처럼, 우리의 주도권을 존중하시는 하나님께 영적인 의지력을 가지고 결단하는 믿음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피조물로써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윤정혜 권사(고등부 3학년 대표권사)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 주저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뜨겁게 예배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살리며,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교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학생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주신 사명에 감사함으로 순종하여,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충만히 누리는 기쁨의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 김숙영 교사(고등부)

성경 속 믿음의 선배들은 형통함 속에서가 아닌, 사방이 막힌 듯이 답답하고 앞길이 막막하기만 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길을 걷고자 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무기력함과 불안함이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려 하지만, 새해에는 고등부가 어려운 상황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교사와 학생들이 하나 되어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의 온기를 나누고, 그분의 비전에 우리 모두의 마음과 열정의 방향을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창대 전도사(고등부)



대학부

공동체 가운데 참된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고, 삶 속에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대학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실 때, 그 빛을 받아 세상으로 나아가는 대학부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대학부 구성원 모두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어떤 상황을 맞이해도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 이형근 성도(대학부 106대 학생회장)

2022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더욱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더욱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들이 어려운 상황에도 말씀으로 각자의 삶이 회복되고, 소통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대학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이지원 성도(대학부 디모데마을 엘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경험하며, 말씀 암송 가운데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대학부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와 사역 활동이 기쁨이 되고, 참여하는 모든 벗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길 기도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행진하며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고, 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고여옥 집사(대학부 웰컴마을 촌장)

대학부 벗님들이 4~6년간 대학부에 머무는 동안 시간만 흘러보내기보다는 크리스천 리더가 되기 위한 훈련과 양육을 체계적으로 잘 받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새해에는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께 조금 더 집중하고,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조금 더 중보기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젊은이들이 복음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대학부와 베드로부에 속한 지체들이 소그룹 나눔을 통해 성장해 가도록, 나의 가정 안에서 믿음의 이야기들이 풍성히 이어져 가도록 기도합니다.

- 박일환 장로(대학부장)

청년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자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는 세상과 융화되기를 바라며 그들과 조금이라도 다르게 보이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의식하는 것이 없길 기도합니다. 저의 일상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 최지혜 성도(청년부 꿈꾸는땅)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라는 변수에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어떠한 모양으로든 모이기에 힘썼던 순간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2022년에도 하나님은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감사와 전혀 알 수 없던 기쁨, 그리고 구하지 못했던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실 분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새해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 맡기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이찬희 성도(청년부 광야소리)

2022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만을 위해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새해에도 청년부와 고등부 두 부서를 섬기게 되었는데 두 부서를 섬기는 가운데 지치지 않고 자신을 낮추며 섬기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영락 청년부가 올해보다 더욱 영적으로 부흥하여 많은 청년들이 청년부 예배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가까이 다가가갈 수 있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임준필 성도(청년부 주는나무)

지난해 가장 큰 후회는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의를 앞세우며 주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새해에는 다른 무엇보다 꼭 이루고 싶은 것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며 주님 뜻 안에서 경제적 자립과 배우자 만남 역시 이뤄지길 소망합니다.

- 정진일 성도(청년부 꿈꾸는땅)

지난 한 해는 매서운 바람과도 같은 코로나 때문에 몸도 마음도 신앙도 게을러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위축되고 침체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영락교회 청년부를 만나게 해주셨고, 예배와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 영적인 나태함에 대한 인간적 합리화와 정당화를 멈추고, 2022년에는 다시 전심으로 하나님을 마주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혹독한 추위라도 이겨낼 힘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 김지호 성도(청년부 꿈꾸는땅)



행진하라! 영락청년공동체



2022년 한 해동안 영락청년공동체를 섬기게 된 제77대 청년회 회장단

코로나, 2년의 공백

2020년 2월 코로나 대유행 이후 우리 일상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변화 중에도 특히 사회적 모임과 활동에 대한 제약이 많아졌고, 단절되는 상황마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함께 모여 예배하기에 힘쓰는 교회 공동체에 큰 어려움을 안겨 주었습니다. 저의 기억으로 2020년 2월 이전만 해도 많은 청년이 성경 부서와 소그룹을 통해 신앙 활동과 교제를 가질 수 있었지만 최근 2년 동안은 비대면 예배의 지속과 부서 및 소그룹 모임의 중단으로 인해 많은 영락 청년들의 마음이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청년회 회장단 구성을 위해 평소 알고 지낸 청년들과 오랜만에 장시간 소통하게 되었는데, 이 소통의 시간을 통해서 코로나로 인한 공백 기간에 생각보다 많은 청년이 공동체로부터 마음이 떠나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게

다가 이러한 청년들의 상황은 현재 우리 사회의 시대적 경향과 맞물려 섬김보다는 개인을 위한 시간적 소비에 더 가치를 두고자 하는 성향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신앙공동체의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이 주는 도전

2022년 영락교회 신앙표어 ‘행진하여 가라’의 바탕이 되는 신명기 1장 6~8절의 말씀은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우리 청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은 호렙산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수많은 난관과 장애물이 앞에 놓여있다는 것을 안 이스라엘 백

성들은 지금 당장 안전한 호렙산에 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행진하여 가라” 입니다. 더 안주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가라! 나아가면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할 때

현재 영락 청년회는 광야와도 같습니다. 예전에 세워졌던 사역 시스템이나 공동체의 연합이 흩어져 있으니 다시 청년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은 위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시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는 천금과 같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전 세대가 지나고 새로운 세대를 청년회에서 세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한다면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뒤로 물러날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영락청년 공동체의 새해 비전

영락 청년회는 기도하는 중에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향에서 2022년 사역 비전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오프라인 사역의 회복과 시대에 맞는 변화’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2년여의 공백 기간에 무너진 성경부서와 소그룹 체계를 서둘러 복원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러한 회복의 과정을 통해 마음이 떠난 청년들을 다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자 합니다. 소그룹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성경부서 및 소그룹 리더들과의 소통을

통해 흐트러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추어 바꾸어야 할 제도적 부분들을 검토하고 청년들과의 지속적인 의견교환을 통해서 미비한 점들을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효율적 운영 및 방향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현재 청년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채널, 줌 등 온라인 플랫폼을 사역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 측면에서 보면 사역팀 별로 각각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상황이라 연계성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각 온라인 플랫폼의 연계를 이루고 하나의 방향성 아래 사역에 활용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들을 사역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목표를 수립하고 각각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사역팀과 합의하여 하나의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영락 청년회의 비전과 사역 방향을 추진할 힘은 바로 영락 공동체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기도 후원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청년공동체를 향한 지속적인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박종훈 성도
청년부 꿈꾸는 땅
77대 청년회장

에베소(Ephesus), 사도 바울의 핵심 선교지

글 유주손 선교사



고대 3대 도서관 중 하나인 셀수스도서관 유적. 도서관은 파괴됐지만 다행히 전면은 원형 그대로 남아있어 당시의 화려했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그들의 자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약속이었다. 바벨탑을 짓고 스스로를 높이하고자 했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놀랍게도 심판 이전의 축복이었다. 결국 역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대로 흘러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는 것이 역사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꿈이다(이사야 49:6).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혈통적 유대인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의 역사는 모든 민족으로 강력하게 확장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초대교회를 일으키시면서 쉽게 바뀌지 않는 유대적 사고를 전환하시며 모든 민족에게

당신의 사역자들을 파송하셨다.

사도 바울은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고자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이었다(사도행전 9:15). 그런 그가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루어 낸 로마 세계의 부흥은 가히 유럽과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다고 평가된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로마서 11:25)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화해에 대한 주옥같은 가르침은 그 복음 전파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화해’ 이것은 비단 하나님과 인간 사이뿐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중요한 주제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을 찢으셨고 그것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화해를 이루셨음을 선포하고 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를 특별히 강조하고 설명한 서신서가 바로 에베소서, 즉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였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서 주님의 계시를 받은 후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회람할 수 있도록 발송한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한다. 편지의 수신자로 제시된 소아시아 7대 교회 중 첫 번째로 편지를 받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이다.

‘욕망과 소망’이라는 의미의 에베소라는 이름을 가진 이 도시는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 제국에 속해 있던 대표적인 항구도시였다. 한때 25만 명이라는 거대 인구가 살았던 이 도시는 소위 아시아의 머리, 또는 아시아의 어머니로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대표적인 항구였다. 그래서 운동 경기 시즌이 되면 이오니아 지역의 전 인구가 몰려들기도 했다.

에베소의 유적지를 걷다 보면 하얗고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장식된, 그 규모가 생각과 기대를 넘

어서는 거대한 고대 도시의 모습을 보게 된다. 멀리서 바라본 이 유적은 세계 최대의 규모를 자랑한다. 아랍과 소아시아, 유럽 등지를 여행하며 로마 제국 시대의 많은 유적지를 돌아보았지만, 에베소의 유적은 규모나 보존 상태 면에서 단연 으뜸이다.

도시로 들어가는 중앙로를 걸으며 도시의 전경을 바라보노라면 마치 2천 년 전 이 거리를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저마다의 욕망과 소망을 가지고 불나방처럼 뛰어다니던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간 것일까.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역시 이 길을 걸으며 에베소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을 것이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잠시 들렀던 이 도시를 위해 3차 전도 여행 때는 2년간 헌신적으로 사역했다.

길을 따라가면서 먼저 눈에 띄는 건축물은 고대 3대 도서관 중 하나인 셀수스 도서관이다. 비록 사람이 돌을 깎아서 집을 짓지만, 집은 그 지은 사람보다 더 오래 남아있다는 것이 새삼스럽다. 당시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고자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이었다. 당대 최고의 무역도시였던 에베소에서 바울과 동역자들은 이 도시를 위해 헌신했다.



에베소 원형극장. 사도 바울이 모함 받아 끌려간 곳이다

1만 권 이상의 책을 보유했었다고 전해지는 이 도서관은 에베소가 동서양 학문의 교류 및 중심지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이 도시에 학구적인 사람들도 많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인지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 이어 아볼로,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및 사도 요한이 사역하면서 매우 탄탄한 기독교 교리를 정리할 수 있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에베소 교회가 수고하며 섬기면서도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낸 교회라고 칭찬하신 것을 보면 소위 이단을 분별해낼 수 있는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인의 도덕성에 관한 강조가 두드러진다. 특히 성적인 문제와 우상숭배에 대해 경고하는데(에베소서 5:5), 이 도시의 특성상 꼭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에베소에서 가장 숭배받던 신이 아데미 여신이었기 때문이다. 이 여신에게 바친 성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

라고 할 정도로 거대한 신전이였다.

이 신전에는 수많은 남녀 사제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과정에서 매우 음란한 집단 의식을 시행했다. 매춘도 합법이었던 것 같았던 당시 에베소의 셀수스 도서관 맞은편에는 상당한 규모의 매춘굴이 있었다. 도시 중심가에 그것도 세계 3대 도서관 바로 맞은편에 매춘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지만, 에베소의 당시 사회 분위기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욕망과 소망이 소용돌이치는 이 도시에서 ‘영원과 거룩’을 말한다는 것은 대단한 도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에베소에서 영원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은 있었다.

중앙로를 따라 계속 걷다 보면 이 도시의 하이 라이트와 마주치게 된다. 2천 년 전, 2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을 수용했던 대형 원형극장(사진)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까지도 형태가 매우 잘 보존된 이 극장은 커다란 부채꼴 형태의 계단식

박해의 문. 요한의 문이라고도
하며 이 문으로 들어가면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다
| 사진제공 김한기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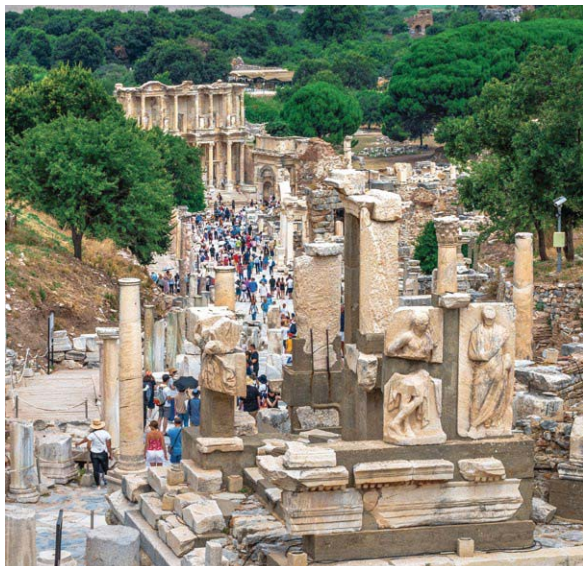
객석을 갖추고 있다. 중심부에 있는 무대에서 마이크 없이도 관중석에 골고루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했다. 실제로 한 쪽 벽면에서 말하면 멀리 떨어진 반대쪽 벽면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사도 바울이 아데미 신상을 파는 자들에게 모함받아 끌려갔던 곳이 바로 이곳으로 알려져 있다.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 때문에 군중에 휩쓸려서 온 것도 모른 채 아데미가 위대하다고 외치고 있었다(사도행전 19:32~34).

마지막으로 에베소 유적 중심지에서 다소 떨어진 곳이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곳을 빼놓을 수 없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머물렀던 곳을 기념하여 세운 교회가 그곳이다. 마리아가 머물렀던 집이 이곳에 있는 이유는 바로 사도 요한 때문이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임종을 지킨 제자이다. 예수님께 직접 어머니를 부탁받은 요한은 그

날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후로도 계속 마리아를 모셨던 것으로 보이는 요한은 에베소 지역의 목회자로 왔을 때 그녀를 모셔왔을 것이다.

도시 안에 머물지 못했던 이유는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탁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고자 했는지 알 수 있다.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식사하고 예수님의 임종을 지킨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바라본 요한은 초대교회 당시 창궐하던 영지주의 이단에 대하여 매우 단호한 태도로 비판했다.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으로 경험했던 사도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신실한 아들이 되어 에베소까지 그녀를 모신 것이다.

에베소에 관한 글을 정리하면서 결국 도시 에베소는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곳에 살았



도시 에베소는 사라졌다. 그곳에 살던
사람과 건물과 욕망도 사라졌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무시했던
이방인의 사도 바울과 그가 전한 복음은
더욱 확장되어 세계로 뻗어갔다.

던 사람들도, 그곳에 넘쳤던 활기도 욕망도 소망도, 세상이 우러러보던 도서관도 1만 권의 책도, 불가사의하다고 칭송하던 신전도 심지어 로마도 사라졌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들 모두가 무시하고 우습게 여겼던 이방인 사도 바울과 그가 전한 복음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사실이다. 거대한 신전에서 숭배받던 여신과 그의 도시는 사라졌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집에서 예배하며 떡을 떤 성도들의 교회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남아있을 뿐 아니라 더욱 확장되어 로마를 넘어 유럽으로,

유럽을 넘어 아메리카로, 이제 극동 아시아를 지나 중앙아시아와 아랍을 향해 뻗어가고 있다.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도시 에베소! 욕망이 소용돌이치며 음란한 우상과 인간의 지식 자랑이 가득했던 에베소에도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구원의 길을 찾던 이들이 있었다. 주님은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에베소의 이름으로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처럼 지금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영락의 뜰인 한반도와 사랑하는 터키에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의 큰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12~13) **만남**

나노사회와 공동체적 연대*



한국사회가 파편화되고 있다. 공동체의 힘이 약해지고 개인의 단위로 조각조각 부서러지면서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있다. 개인은 더욱 미세한 단위로 쪼개지며 서로 이름조차 모른 채 고립된 섬이 되어 간다.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사회가 극소단위로 분해된다는 의미에서 ‘나노사회(Nano Society)’로 지칭한다. 10억 분의 1을 의미하는 접두사인 ‘나노(nano)’는 보통 원자나 분자 단위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단위다. 사회가 공동체적 연대를 유지하지 못하고 극소단위로 나뉘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쪼개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가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현상은 인구구조의 변화에서 그 원인을 먼저 찾을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인 가구의 수는 664만 3,354가구로 전체 가구의 31.7%의 비율을 차지한다. 또한 가족 공동체의 결속력도 약해지고 있다. 가정이 수행했던 기능이 사회화되고 구성원 각자가 개인화된 삶을 각자 영위하는 현상이 강해졌다. 가족이 함께 오순도순 모여 함께 즐기던 집

* 내용 참고 및 인용 (트렌드 코리아 2022), 〈코로나가 시장을 바꾼다〉

밥의 즐거움은 편의점 음식이나 간편식으로 대체되고 가족의 대소사나 사소한 집안일까지도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족 공동체조차 흩어지면서 개인화 현상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학교도 마찬가지다. 대학은 공부뿐만 아니라 또래 집단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기본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뿔뿔이 흩어지고 있다. 비대면 수업의 일상화는 학생들이 또래 친구들과 교류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받는 결과를 가져왔다. 수업만큼이나 동아리를 비롯한 학생 간 교류와 대외활동 등이 중요한 대학 생활에서 코로나19는 개인주의 문화를 강화하는 조건이 되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입학생들인 20·21학번은 MT나 축제, 동아리 등의 캠퍼스 생활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동기들의 얼굴도 온라인 화상으로만 본 경우가 많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고 공동체적 ‘우리’를 경험하지 못한 채 오롯이 ‘나’만이 존재하는 어색한 대학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거리두기’를 강제하여 사람들과의 거리가 인위적으로 멀어지게 했으며, 얼굴을 반쯤 가린 마스크는 사람 사이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다. 실제로 인간은 공감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얼굴 근육이 매우 세밀하게 발달했는데, 마스크로 얼굴을 덮어야 하는 현 상황에서는 상호 간에 소통이 막히면서 예전과 같은 공감과 연대의식을 유

‘나노사회’의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높여야

공동체의 위기가 도래한 시대 속에서
신앙공동체를 중심으로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강화해야

지하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또한, 누군가가 나를 감염시킬지 모른다는 공포는 우리를 더욱 심한 고립으로 몰고 가고 있다.

팬데믹 시대에는 생물학적 면역체계와 함께 행동적 면역체계가 활성화된다. 생물학적 면역체계가 백신 접종 등을 통해 외부의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시스템이라면, 행동적 면역체계는 외부에서 낯설거나 위협하다고 인식되는 존재가 다가올 때 이를 회피하고 혐오하는 본능적 행동을 가리킨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발현하면 전염병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는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건강한 사회적 신뢰 형성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덴마크의 연구논문 〈질병 회피 수단으로서의 불신 전략〉에 따르면 개인의 행동 면역체계가 민감하게 작동할수록 사회적 신뢰 지수가 매우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도 20세기 초반 스페인 독감 유행이 발생한 후에 18개 국가에서 신뢰도 수준이 어떻게 변했는지 분석했는데 전염병을 최악으로 경험한 나라일수록 대인 관계의 신뢰도는 더욱 심각하게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은 이전보다 서로를 더 불신하게 되었고 전염의 두려움과 함께

호혜(互惠)적인 행동까지 줄어들게 된다.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우울감을 느끼는 ‘코로나 블루’는 질병 자체에 대한 공포보다는 파편화된 사회 속에서 느끼는 개인의 고립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분이 더 크다. 원래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대면 접촉이나 친밀한 만남과 같은 전통적인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소위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는데, 코로나19는 이러한 현상에 기폭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나노사회’의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무엇보다 사회적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내가 속한 작은 집단의 관점을 넘어서 더욱 넓고 큰 단위로 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지역의 관점,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의 관점에서 생각하며 공동체의 공공선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최근 기업 경영에서 ESG(환경보호, 사회적 가치, 지배구조) 등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도 코로나19 이후 공동체적 연대와 협력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공감력을 기르는 노력도 필요하다. 자신과 다른 사고를 하는 집단이나 세대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를 강요해서도 안 된다. 특히 기성세대가 신세대를 대할 때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잣대를 무조건적으로 들이대는 것도 곤란하다. 어린 세대도 윗세대의 걱정을 ‘라떼(연장자들이 종종 하는 말로 “나 때는 말이야”라는 표현)’라고 하며 평가절하해서

도 곤란하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 간에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심화되는 ‘나노사회’의 흐름을 극복하는 시작이 될 것이다.

공동체의 위기가 도래한 시대 가운데 교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신앙공동체를 중심으로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강화해야 한다. 에베소서 4:4~6에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는 말씀이 적혀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공동체의 하나됨의 필요성에 대한 깨달음을 준다. 평안의 메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갈라지고 쪼개져 나누어지는 세상을 통일하고 연합하신다. 성도 또한 각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연합과 일치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성도인 우리 역시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새겨 깨어진 사회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한다. **만남**



이준영 집사
노원교구, 상명대 교수
『트렌드 코리아 2022』 공저자

말씀을 삶에서 고백하는 믿음의 훈련

8주간 그루터기 프로그램을 마치며

지금까지 22기 수료생을 배출한 ‘그루터기’는 이사야 6:13 말씀을 바탕으로 중등부 친구들을 이 시대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한 영락 중등부의 기초신앙 양육훈련입니다. 22기 ‘그루터기’는 지난 9월 25일부터 11월 13일까지 8주간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친구들은 <신약성경> 전체를 바르게 이해하고 말씀을 삶에서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훈련을 체험했습니다. 특별히 독서주간으로 진행된 3주차에는 『마가복음 뒷조사』라는 책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했으며, 마지막 8주차에는 ‘그루터기 아웃팅’으로 선생님과 학생들이 5~6명씩 조를 이뤄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정동제일교회를 방문하여,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신앙유산을 직접 돌아보며 배울 수 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지난 11월 13일(토)에 다녀온 아웃팅을 끝으로 8주간의 ‘그루터기’ 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처음 ‘그루터기’ 신청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번만큼은 조장을 안 해야지’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는데, 역시나 그건 제 마음대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니 조장으로 섬긴 것이 저에겐 특별하고도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조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였는지를 깨닫게 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원들끼리 서로 친하지 않고 대화도 거의 없어 당황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준비하신 ‘아이스브레이킹’을 통해 조원들과 조금씩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조원들은 더 열심히 참여해 주었고, 마지막 ‘아웃팅’에서는 모두가 친해져 모든 과정을 큰 어려움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의 말씀이 전해준 울림과 감동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은 이번 ‘그루터기’에서 신약성경을 중심으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1주차에는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중에서도 ‘가, 전, 고’가 기억에 남습니다. ‘가, 전, 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을 줄여서 말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아픈 자들을 고치신 것으로 이번에 그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배웠던 2주차 시간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9일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최후의 만찬, 가롯 유다의 배신과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잡히심,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이어지는 사건들을 시간순으로 꼼꼼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제게 큰 감동과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였다면 그 상황에서 도망치거나 하나님을 원망했을 텐데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고 제게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는 교훈

세번째 강의에서는 초대교회의 탄생과 박해를 배웠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독교가 로마 국교로 인정되기 전까지 존재하고 활동했던 교회를 말하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 황제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탄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지금 저는 너무 안일하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반성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킨 믿음 덕분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그루터기’에서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선교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특별히 세 차례에 걸친 바울의 전도여행을 사도행전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과 선교 활동을 살펴보니 그 당시 상황에서 어떻게 가능했을까 싶은 정도로 바울이 엄청난 선교 사역을 펼치며 여러 교회를 세우고 살렸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전도여행과 선교 활동을 살펴보면 자신의 목숨을 포함해서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았던 바울 사도의 모습이 존경스러웠고 닮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신앙유산을 돌아보며

마지막 주에는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과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정동제일교회에서 아웃팅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양화진에서 진행된 아웃팅에 참여했습니다. 100여 년 전 이 작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순교하신 분들의 수많은 묘를 보니 마음이 뭉클해지고 선교사님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과 함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웃팅을 통해서 조원들과 더 친해졌고 조원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게 되어 더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중등부 친구들과 ‘그루터기’를 통해 만나 좋은 활동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부족한 저를 조장으로 사 용하시고 좋은 말씀을 배우는 기회와 은혜로운 아웃팅을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만남**



이성연
중등부 3학년

사랑해요 CebC, 사랑해요 영락모자원

송승호 집사 _ 마포·영등포교구, CebC 부감



크리스천 글로벌 리더를 키우는 CebC

CebC는 지난 2002년부터 초등학교 연령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어린이 영어 성경 커뮤니티입니다. ‘CebC’가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CebC는 ‘Children English Bible Community’의 약자로 ‘어린이 영어성경공동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커뮤니티(Community)라고 하지 않고 클래스(Class)라고 불렀는데 ‘공부반’이라는 작은 의미보다는 학생과 부모 그리고 교사와 스태프가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의 공동체적 성격이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요람의 설명처럼 CebC는 신앙교육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크리스천 글로벌 리더로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싱크 오렌지(Think Orange)」 교육과정을 도

입하여 기독교 교육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배우고 익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쉽고 재미있는 영어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찬양 가사의 원래 표현을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매달 새로운 곡을 배우고 반복하는 가운데 어느새 영어 가사를 흥얼거리며 율동도 따라 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매달 하나의 주제(Theme)로 이루어진 성경 교육과정은 1학년 유년부 어린이부터 6학년 소년부 학생 모두에게 소중한 이정표와 같은 말씀의 씨앗이 되고 있으며 그 주제를 가장 잘 표현하는 영어 성구 한 구절(Memory Verse)을 매달 하나씩 암송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암송한 영어 성경 구절이 청장년이 되어서도 이 친구들에게 얼마나 큰 영적 자산이 될까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이 벅찬 일입니다.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온 CebC

CebC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추수감사절 시기에 이웃을 위한 작은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당시 담당 교역자였던 크리스틴 한 전도사님의 아이디어로서 영락모자원을 위한 ‘CAN Food Drive’ 프로그램으로 시작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이웃들에게 조그만 사랑을 전달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추수감사주일 한 달 전부터 학생들에게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서도 잘 상하지 않는 음식(Canned Food-통조림 식품)이나 학용품, 소형 가전제품 등을 선물로 가져오도록 독려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간 모여진 물품과 함께 추수감사절에 예배를 드리며 나눔의 기쁨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과 지도위원들의 성원과 후원으로 작은 금일봉도 마련해서 추수감사주일에 직접 모자원을 방문하여 전달하는 행사를 한 해도 거르지 않아, 올해 10번째 나눔을 할 수 있어서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물품 기증만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모자원 방문에 참여했는데, 무엇보다 따뜻하게 맞아주신 원장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영락모자원은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무사히 잘 지내는 모든 영락모자원 식구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영락모자원에는 16세대의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들에는 영아부터 어린이부터 고등부 학생까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기도 제목은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의 친구들이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CebC는 영락모자원을 후원하며 10번째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사진 왼쪽 첫 번째가 필자)

함께 느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모자원을 거쳐 간 친구들이 다시 방문하여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자신들의 삶의 길을 얘기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는 원장님 말씀에 큰 공감이 되었습니다.

2022년 창설 20주년을 맞이하는 CebC

CebC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CebC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하고자 합니다. 2022년에는 영락교회 CebC가 스무 살 어른이 됩니다. 20주년을 맞아서 지난 일을 돌아보고 또 새롭고 다양한 사역을 기도하며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느낄 수 있듯 점점 세상은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CebC에서 크리스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영락의 소망들이 쑥쑥 자라나기를 기대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CebC 교사로 섬기실 분들을 찾습니다. CebC는 가족 같은 공동체입니다. 주일 오후 2시부터 3시 20분까지 교육관 4층 예배실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만남**

주님과 같이해요!

이화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 '이화하하'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이화선 작가는 말씀묵상 그림일기
「나에게 꼭 붙어있으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 등을 출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
그저 신로하며 걸어갑니다



주일에 은혜로 가득 채우고
이제 삶에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크리스천은 직장, 일터, 삶에서
재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찾습니다



영락교회 베트남예배를 소개합니다

2022년 1월부터 매 주일 9시 30분, 봉사관 501호



2021년 9월 선교부 후원으로 베트남 유학생들을 위한 <베나영락 한글문화교실>을 개설했다

처음 베트남을 떠날 때, 두렵고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2019년 가을 한국에 와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고 그 당시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저를 이 한국 땅까지 데려와 주셨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만남

베트남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11살 때, 어머니의 난치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였던 제가 교회에 처음 간 이유는 예수님이 모든 병을 치료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수님께 저의

엄마를 치료해 달라고 간청하기로 했습니다. 교회를 찾아가 목사님께 기도 제목을 이야기했더니, 목사님이 기도하시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는 집에 가서 직접 너희 어머니에게 기도해 드려라”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후, 저는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에게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하나님이 저와 같은 아이의 기도를 들어 주셨고, 바로 다음 날, 어머니의 병을 완전히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면서 우리 가족은 다 함께 울며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2015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을 통해 영락교회가 베트남에 파송한 이노하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

님은 저를 많이 아끼며 사랑해 주셨습니다.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저는 학교에 다닐 수 있었고 신앙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4년 동안 선교사님의 교육을 통해 성경과 한국어를 배우며 지도자훈련도 받았습니다. 훈련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소명)에 순종하게 되었고 신학 공부를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를 구하셨기 때문에 저의 인생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며 섬기겠노라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베트남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한국에 오기 전 하나님이 제게 주신 꿈은 모든 베트남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베트남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기도 제목을 품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그렇고 해외 특히 한국에 있는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아직 모르고 지내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주변에 베트남 친구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 몇 명을 전도해서 영락교회로 데려와 한국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모국어가 아니기에 설교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친구들은 꾸벅꾸벅 졸아서, 저는 그저 옆에서 마음속으로 기도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만약에 영락교회에도 베트남어 예배가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2021년 6월 저는 영락교회 선교부로부터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을 선교하기 위해 베트남예배 설립을 계획 중이라는 연

락이었습니다. 선교부의 소식을 들은 저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감사하며 베트남예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베트남 친구들과 함께 성경공부와 전도를 위한 ‘비나영락’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비나’란 ‘베트남’의 줄임말로 ‘비나영락’은 영락교회 안에 있는 베트남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비나영락 한글문화교실’과 베트남예배

2021년 9월 영락교회 선교부 후원으로 베트남 유학생들을 위한 <비나영락 한글문화교실>을 개설했습니다. 1기 과정에는 13명이 참여했고 11월 20일(토)에 1기 수료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어 시작된 2기에는 23명이 신청했습니다. <비나영락 한글문화교실>은 베트남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통해 한국 생활 적응을 돕고, 영락교회 베트남예배로 인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지금까지의 모든 준비하는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에 재학 중인 저는 2022년 1월부터 매주 영락교회 베트남예배를 인도하며 설교할 예정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며 성도를 사랑하는 교역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 힘을 다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만남**



규옥투안 전도사
선교부 베트남예배

미래를 꿈꾸는 행복한 학교

영락의료과학고등학교



정 연 교장선생님(사진 가운데)과 학생들

2022년으로 설립 70주년을 맞이하는 영락의료과학고등학교(전신 영락여상, 영락유헤스고)는 학원법인 영락학원 산하 3개 학교 중 한 곳으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 교정에서 영락고등학교와 한 울타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영락의료과학고(이하 영락의과고)는 의료IT과, 3D콘텐츠디자인과, 의료비즈니스과, 보건간호과로 구성된 의료분야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특정 분야의 인재와 전문 직업인 양성을 목표로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입니다. 특성화고 졸업 후에는 전공 분야에 취업하거나, 대학의 전공 분야 학과로 진학합니다. 또한 '선취업·후학습' 제도를 통해 직장 3년 재직 후 4년제 대학에 입학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특성화고 전형을 통한 공무원, 부서관 등 다양하고 폭넓은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교육(전공)과 다양한 경험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발 빠르게 대처하며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여러 특성화고등학교 중에서도 영락의과고는 '기독교'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설립자 한정직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기독교 인재양성'이라는 교육 목표를 잘 실천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영락의과고는 점차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의료분야에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여 파송하는 기독교 명문 특성화고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의료분야에 필요한 크리스천 인재들을 잘 양성할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영락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에 펼쳤던 새로운 도전! 예배와 신앙교육

1) 원데이 페스티벌(One Day Festival)

매년 우리 학교에서는 신앙의 축제인 '신앙수련회'를 진행합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신



재미와 감동을 함께 추구했던 '원데이 페스티벌' (사진 왼쪽부터 달빛마을의 찬양,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준 곽상학 목사)

앙 활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학생들의 기준에 맞춰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그들만의 축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의 공감을 얻는 신앙수련회를 기획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믿음 없는 학생들에게 신앙생활은 재미있고 신나는 것, 삶의 축제와 같은 것이라고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수련회'를 '원데이 페스티벌(One Day Festival)'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원데이 페스티벌>이 학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며, 앞으로 학교에서 펼쳐질 신앙생활에 대한 기대를 주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원데이 페스티벌>의 첫 시작은 학급별 애찬식이었습니다. 학급마다 담임선생님의 인도로 시작하여 학생들의 릴레이축복을 통한 교제와 맛있는 주먹밥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담임선생님의 축복기도로 애찬식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는 오직 '재미'만을 추구한 이벤트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이벤트게임은 '가위바위보 최강전(개인전, 학급대항전)'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많은 학생이 참여하여 마치 체육대회의 열기만큼이

나 뜨겁고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끓주린 배와 재미를 채웠으니 이제 말씀과 찬양으로 학생들의 영혼을 채울 시간이 왔습니다. 외부 강사를 선정하는데 정말 많은 공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좋은 목사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번개탄' 임우현 목사님과 '청신호' 곽상학 목사님은 학창시절에 만난 하나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해주시며, 어렵고 힘든 학생들의 일상에 깊이 공감해주셨고, 위로와 소망,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또한, 유튜브에서 핫한 달빛마을과 대중가수 범키 형제의 찬양과 간증은 재미를 뛰어넘어 감동과 은혜를 더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마무리된 <원데이 페스티벌>은 많은 학생들에게 신앙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수업시간에 만나는 학생들은 이야기합니다. "재미있었다", "기대 이상이였다", "내년에는 누가 올까요?", "앞으로 예배 잘 드릴게요!" 등등. 행사를 준비해야 하는 저의 어깨가 벌써부터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작은 소망이 생깁니



교내 전문실습실에서 전공수업 진행중인 학생들. 의료분야 크리스천 인재를 양성하는 특성화고교다

다. “저 이제부터 하나님 믿을래요!”라는 아이들의 고백이 듣고 싶습니다.

2) 기독교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교육을 꿈꾸며

학교에서는 매년 의무로 진행해야 하는 교육 내용이 있습니다. 장애이해, 생명존중, 통일교육, 학교폭력 예방 등이 그러한 교육들입니다. 물론 이러한 교육들은 기존에 많은 자료와 강사가 준비되어 있어 교육을 진행함에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들이 기독교학교에서는 기독교세계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고민을 가지고 기도할 때, 종교 수업을 통한 배움과 실천, 예배를 통한 감동과 은혜가 이루어지면, 기독교세계관으로 학생들에게 장애와 생명 및 통일과 이웃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소망을 바탕으로 ‘장애 이해’와 ‘통일’을 주제로 첫 ‘도전’을 진행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장애교육주간’, ‘통일교육주간’으로 한 주씩을 지정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장애교육은 학교와 교회의 장애연계사역 경험이 있는 창동 염광교회 장애인 부서와 협력했고, 통일교육은 기독교 통일지도자 훈련센터와 협력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사역자들과 협력하니, 다양한 자료와 프로그램으로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예배를 통해 간증과 감동 있는 말씀으로 학생들에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장애우에 대한 이해와 통일이 무엇인지 잘 전할 수 있었습니다. 통일교육은 기독교 채널인 CGN-TV를 통해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유튜브 검색: 이젠 작은 통일...‘통일’ 넘어선 ‘평화대사’로)

항상 깨어있는 기독교학교 교육현장을 꿈꾸며

세상도, 생각도, 학생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흐름 속에 학교와 교육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도 변할까요? 신앙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고백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 속에 뒤쳐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있는 학교와 교목, 기독교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굳건한 십자가를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학원선교 현장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급변하는 시대와 법과 제도에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 붙들고 복음 들고 나아가야 할 학교와 교목, 기독교 교사들을 위해서... **만남**



유인선 목사
영락의료과학교 교목

호산나찬양대 56년의 시간

대학생들의 ‘젊은 찬양’으로 믿음의 대 이어가

호산나찬양대 대장 정우영 안수집사, 총무 김은덕 성도



2019년 부활절 음악회(지휘 장세완)

4부 예배를 섬기는 호산나찬양대는 1965년 ‘대학생 찬양대’로 시작했고, 2년 뒤 한경직 목사님이 ‘호산나’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당시 주일 예배가 2부로 나뉘면서 기존 찬양대에서 대학생들이 분리되었습니다. 이처럼 젊은 찬양대로 시작한 전통을 이어받아 현재까지도 20대 중심의 청년들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호산나찬양대의 역대 지휘자는 초대 김종일 지휘자를 시작으로 황철익, 윤학원, 박명섭, 박수길, 이단열, 백경환, 박종윤, 이관섭, 김영준, 이수철, 유봉헌, 박영근, 고영필 지휘자를 거쳐 1996년부터 장세완 지휘자가 25년째 지휘봉을 잡고 있습니다.

호산나찬양대는 토요일 4시 주중 연습과 주일 11시 30분에 시작하는 연습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왔습니다. 안타깝게도 2019년 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모든 대원이 함께 찬양하지 못하는 시간을 약 2년간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매 주일 줌으로 박지운 지도목사님이 경건회를 진행하여 예배에 힘써왔습니다. 다행히 2021년 11월부터 ‘위드코로나’가 시행되어 대원들이 예배당에 모여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찬양대석이 차고 넘쳐 인생의 젊은 날에 하나님 찬양하기에 힘쓰는 청년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979년 순회연주



2019년 일본순회연주

호산나찬양대는 대원들의 목소리 찬양뿐 아니라 양상블 대원들의 아름다운 악기 소리도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양상블은 장세완 지휘자의 주도로 창설되었습니다. 2002년 1월 악기 전공자만을 구성원으로 시작했으며, 2003년에는 당회에서 공식적으로 양상블의 지위를 인정받았고, 이후 매 주일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양상블은 절기 음악회, 창립음악회 등 교회의 다양한 행사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곡의 은사가 있는 대원들에게 창작의 통로를 열어준 호산나

호산나 대원 중 작곡을 전공한 대원들이 곡을 쓰고, 호산나 대원들이 초연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호산나찬양대의 커다란 자랑 중 하나입니다. 호산나찬양대를 거쳐 간 많은 작곡가가 20대 시절에 열정과 감사로 곡을 만들고 찬양했던 경험이 평생의 버팀목이 된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 창작곡 중 대표적인 것은 리디안, 동행(계현찬 곡), 주는 나의 하나님, 축복있으라(백유미 곡), 시편

23편(조아름 곡), 내 영이 잠잠히(윤웅상 곡),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박혜원 곡) 등이 있으며, 이들은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1978년부터 시작된 호산나 순회연주 호산나찬양대의 대표적인 활동으로 자리잡아

교회의 공식 행사가 아니었기에 지방교회 섭외가 무척 어려웠지만, 대원의 부모님이 사역하는 경주제일교회, 부산영락교회, 부산 이사벨여자고등학교 등에서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호산나 대원의 부모님들, 호산나찬양대 지도위원, 교회 어른들의 전폭적 후원과 예산 마련을 위한 대원들의 자발적인 노력 속에 제1회 순회연주라는 첫 단추를 끼울 수 있었습니다.

3박 4일의 일정을 마친 후 호산나가 방문했던 지방교회로부터 순회연주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져 교회 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다음 해인 1979년부터는 음악부 공식 행사가 되어 기도와 축복 속에서 순회연주를 떠나게 되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78

년부터 코로나 사태 이전 2019년까지 37번의 순회연주를 해왔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2004년, 2005년에 일본 순회연주, 2008년 유럽 순회연주, 2011년, 2014년 미국 순회연주 2017년, 2019년 일본 순회연주 등 총 7번의 해외 순회연주도 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순회연주 일정마다 7~8회의 땀 뻘뻘한 연주 일정이 치러지지만, 언제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되는 호산나찬양대의 전통이 면면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많은 대원의 신앙이 성장하고 젊은 대원들이 비전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56년이라는 세월이 이어진 만큼 초창기 대원들의 자녀들이 호산나 대원이 되어 찬양하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찬양대이기도 합니다. 영락의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 찬양에 온 맘과 정성을 다하고 올바른 신앙인으로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2011년 겨울음악학교

새가족을 위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주세요

2021년 코로나19 상황에도 수많은 새가족이 영락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동안 등록하지 않고 다니다가 교회 출입 때 찍어야 하는 QR코드를 받기 위해 등록한 새가족,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하면서 등록한 새가족, 결혼이나 배우자의 인도로 등록한 새가족 등 정말 다양한 이유로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새가족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새가족 등록 절차에 두 번의 면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존 5주간의 대면 및 비대면 교육을 받으시면서 새가족부 목사님 또는 전도사와 첫 번째 면담을 하는데 이때 새가족의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다음 2주~3주 뒤(교구 상황에 따라 다름)에 2차 교구 면담을 하신 이후에 영락교회 정식 교인이 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온라인 교육을 원하는 새가족의 문의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각자 가진 스마트 기기나 PC 상황이 매우 달라 어려움을 겪은 새가족도 많았지만 기기 상황에 맞는 교육 방법을 제안해 드리며 어려운 일들을 해

결할 수 있었습니다. 면담 또는 온라인 교육 안내를 하면서 새가족들의 여러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일을 소개합니다.



장민희 전도사
새가족부

자녀와 손자를 위해

제 어머니보다 조금 더 연세가 있어 보이시는 새가족이 5주간의 온라인 교육을 마치고 1차 면담을 하러 교회에 오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찡했습니다. 가족 대대로 신앙생활을 이어오셨는데, 따님이 결혼 후 서울로 이사하면서 신앙생활을 예전처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방에서 함께 지낼 때는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던 터라 마음이 아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가족 분께서 주말마다 서울에 와서 손자들을 돌보시는데, 영락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손자들을 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따님의 신앙회복과 손자들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울에 오신다면서 따님과 손자들과 함께 영락교회에 예배드리러 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신앙의 대를 잇기 위해서 주말마다 힘든 걸음을 하시고 자녀와 손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도의 결실

올해는 권사님과 집사님들의 기도 결실이 많이 이루어진 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한 결실이 이루어졌다고,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던 남편이 갑자기 교회 등록을 결심했다며, 제게 교육과 면담 일정을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오랜 기도의 결실이라 하시니, 저 역시 거룩한 책임감으로 성심성의껏 새가족 교육을 안내하게



지난 11월 21일 찬양예배 시간에 있었던 새가족환영회. 코로나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던 새가족환영회가 2년여 만에 다시 열렸다

되고, 결국 등록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감사하다고 거듭 인사하는 모습에 하나님께서도 정말 기뻐하셨지요.

우연히 접한 말씀의 은혜

서울로 거주지를 옮기시면서 교회를 찾다가 우연히 영락교회 김운성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해서 온 분들도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우연히 영락교회 설교를 들었을 때, 너무나도 크게 은혜 받았고 본인에게 하는 말씀 같아서 찾아오셨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말씀대로 365>와 여러 대면, 비대면 교육을 받으면서 “영락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새가족 분들의 모습을 보면 영락교회가 정말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2022년 새가족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2021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및 비대면 새가족 교육을 운영하면서 500여 분의

새가족이 등록했습니다. 2022년에도 새가족이 많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다양한 상황에도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영락교회를 찾아오는 새가족을 위해 영락교회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새 생명이 구원되는 역사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새가족을 면담할 때 “영락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기쁜 일, 슬픈 일 나누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드립니다.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새가족을 위한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주셔서 2022년 표어처럼 새가족과 함께 행진하여 가는 영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남**

저에게 찾아온 긍정적인 변화



새가족환영회를 마치고
김운성 목사님과 함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월 영락교회의 새신자가 되었고, 며칠 뒤면 바로 이 자리에서 새신부가 되는 김지유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와 만난 순간을 회상해보니 초등학교 시절에 가장 좋아하던 담임선생님이 주신 CCM CD를 받았을 때인 것 같습니다. CD에는 모두 13곡 정도의 찬양곡이 수록되어 있었고 어린 시절의 저는 그 음악들을 따라 부르며 자연스레 처음 하나님과 교회를 접했습니다. 그 뒤 성년이 되어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남편이 될 남자친구와 존경하는 예비 시부모님이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은혜로운 영락교회의 새신자가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현재까지도 다소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저에게 2021년 한 해는 영락교회 교인이 되고, 또 한 사람의 아내가 되는 정말 뜻 깊은 전환의 해였습니다.

주일날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밝게 맞아 주시는 교회 관계자분들과 밝은 미소로 먼저 인사를 건네시는 성도들을 볼 때면 한 주의 피로했던 심신이 사르르 녹아내림을 느낍니다. 새가족 교육을 무사히 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새가족부 섬김이분들과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결혼준비교육을 이끌어주신 상담부, 또 교구 목사님과의 면담과 세심한 기도 말씀에 큰 용기와 새 힘을 얻었습니다. 지난달에는 교회광장에서 우리 구역의 구역장님을 처음 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좋은 책을 선물 받아 굉장히 가슴 뭉클하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영락교회에 와서 큰 사랑을 받으니, 저 또한 이렇게 훌륭한 분들처럼 주변의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도록, 한층 더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영락교회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넓고



새가족을 위한 축복의 시간

| 사진제공 새가족부

깊은 마음처럼 제가 가진 것을 남들과 나누고 베풀며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타심을 기르고 싶습니다.

요즘은 하루를 마무리할 때 <말씀대로 365> 영상으로 위임목사님의 말씀 묵상을 들으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았는지 자아 성찰의 시간을 보냅니다. 영락교회에 오기 전에는 저 자신조차 돌아볼 여유가 없이 쫓기듯이 살았지만, 믿음을 갖게 된 이후에는 저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챙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또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일에도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주님을 만난 후 저에게 찾아온 가장 좋은 변화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영락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며 저에게 찾아온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지속해서 주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새신자교육 수료기념으로 받은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주변 지인들과 공유하고 싶은 부분을 저희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전달하여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제 삶의 좋은 지침이 되는 말씀이 있어서 적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시편 84:11)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루하루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다 보면 그날들이 모여 훗날에는 의도하여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참된 교인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만남**



김지유 성도
강서·구로·양천교구

따뜻한 나눔, 행복한 공동체

영락소규모요양원



영락소규모요양원 전경

영락소규모요양원은 2008년 12월 하남시 영락 노인복지센터 안에 터를 잡고 가족과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사회 밀착형 노인시설로 개원했습니다. 가족기능 부재와 건강 악화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노인 재할 및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편안한 노후의 삶을 제공하기 위한 의료복지와 재가복지가 공존하는 복합형 노인시설입니다. 현재, 시설에 거주하는 입소 어르신 17명과 자신의 집에 거주하며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 25명이 있습니다.

영락소규모요양원은 ‘따뜻한 나눔, 행복한 공동

체’를 원훈으로 삼아 지역사회와 요양원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 및 개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공모사업에 선정된 ‘잊혀진 기억을 찾아서-기억회상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과 함께 그때 그 시절을 회상하며 나의 집 꾸미기(오른쪽 페이지 상단 우측 사진), 젊은 시절의 가족사진으로 가족 액자 만들어서 가족과의 추억을 함께 나누기, 요즘 트렌드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하여 어린 시절을 추억하며 달고나 만드는 ‘영락 게임’ 등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회복을 위해 진행한
'잊혀진 기억을 찾아서-기억회상 프로그램'

을 진행하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영락소규모요양원은 작은 인원의 장점을 살려 아기자기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분이든 소외되지 않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락교회를 모체로 한 영락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시설인 만큼 어르신들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절기 행사 및 다양한 예배를 통해 신앙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어르신에게는 복음을 전파하여 세례를 받도록

인도하고 있지요. 불교 신자로 입소하신 어르신도 이제는 예배에 거부감 없이 참여하여 찬양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영락소규모요양원은 아름다운 공간에서 어르신들을 섬기며 모실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는 영락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더욱 어르신들을 공경하며 주님의 섬김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남**

영락소규모요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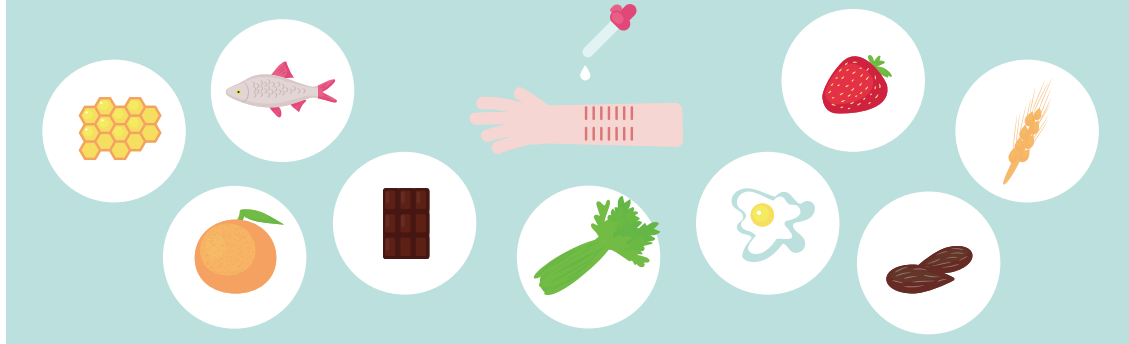
www.youngnak-noin.or.kr

연로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내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08년 12월 설립되었다. 가족과 가정 기능의 강화를 목적으로 24시간 입소 보호와 더불어 방문 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체계를 갖춘 장기요양 기관이다.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로 구성된 전문 인력이 신체적, 정신적, 기타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인정의 1~2등급, 시설 3~5등급을 판정받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보호하며 일상생활 적응을 돕고 있다. 특히 방문 요양, 주간 보호, 입소서비스 등 각종 토털 케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더욱 안락한 노후를 지원하고 있다.



김희진 집사
강동·송파교구
영락소규모요양원 원장

식품 알레르기를 알아봅시다



피부에 발진이 나타나면, 먹었던 음식을 원인으로 의심하면서 병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가 많습니다. 의심되는 식품을 먹지 않았어도 발진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정확한 원인을 알고 싶다고 합니다. 쉬우면서도 어려운 식품알레르기 질환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식품으로 인한 유해반응 종류

식품으로 인해 나타나는 유해반응을 크게 세 종류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알레르기 면역 작용으로 인한 식품알레르기 반응입니다. 둘째는 세균에 감염된 식품 즉 상한 음식 섭취로 인한 식중독 반응이 있습니다. 셋째는 체내에서 특정 영양분을 흡수하는 효소 결핍으로 인한 식품불내증 반응이 있습니다. 식품 안에는 식품에 따라 고유의 특정 성분이 있고, 그에 따른 약리작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 성분이 있는 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 약리작용으로 인해서 유해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식품알레르기 증상

식품알레르기로 인한 증상은 여러 기관에서 급

성과 만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부 증상으로는 두드러기(그림1)와 가려움, 혈관부종(그림 2,3), 발진, 습진이 있습니다. 소화기 증상으로는 입 주변 가려움, 구강점막부종, 구역, 헛구역질, 구토, 복통, 설사를 들 수 있습니다. 호흡기 증상으로는 재채기, 호흡곤란, 코 막힘, 콧물, 코 가려움, 쉼소리, 가슴 답답함, 쌉쌉거림이 나타나며, 심혈관계 증상으로는 현기증, 의식변화, 저혈압, 부정맥이 있습니다. 매우 예민한 환자의 경우, 직접적인 접촉과 섭취가 없더라도 대기 중에 날리는 식품 향원을 들이마시거나, 냄새만으로도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식품알레르기 질환들

식품알레르기로 인해 나타나는 질환으로는 두드러기/혈관부종, 아나필락시스, 구강알레르기 증후군, 아토피피부염, 호산구식도염, 호산구위장

염, 식품단백유발소장대장염 증후군, 식품단백유발 알레르기직장결장염, 셀리악(Celiac)병 등이 있습니다.

식품알레르기는 피부 질환인 두드러기와 혈관부종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두드러기와 혈관부종이 식품알레르기로 인해 나타나는 경우는 약 20~30% 정도입니다. 나머지 원인으로는 감염, 약물, 운동, 유전, 스트레스, 자가면역, 식품첨가물 등이 원인입니다만,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는 식품알레르기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형태의 질환입니다. 아나필락시스 IgE 매개형 과민 반응입니다. 원인 식품에 노출된 후에 몇 분에서 2시간 이내에 피부 증상, 호흡기 증상, 심혈관 증상, 위장관 증상으로 나타나며, 일반적인 알레르기 약물치료로는 조절이 되지 않고, 에피네프린 주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나필락시스로 진단받은 환자는 병원에서 휴대용 에피네프린 주사제를 처방받고 교육 동영상상을 통해 사용법을 익혀야 합니다.

식품알레르기 치료

① 식품알레르기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이 되는 식품을 먹지 않고 접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레르기 식품을 효과적으로 피하기 위해서는 주재료 식품은 물론 양념, 소스, 조리 기구, 조리과정에서 오염되는 소량의 식품 등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유알레르기 환자는 우유, 분유, 치즈, 버터, 요구르트 등 우유가 주성분인 식품뿐 아니라, 쿠키, 케이크, 빵, 시리얼, 아이스크림, 소스, 카레, 영양제, 건강보조식품 등 우유가 소량이라도 포함된 모든 식품, 우유를 마시던 컵에 따른 오렌지 주스, 우유와 교차항원성이 높

은 산양유 등도 모두 제한해야 합니다.

② 원인이 되는 식품을 소량씩 먹이면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경구면역요법이 있습니다. 우유, 계란, 땅콩(견과류) 등에 의한 식품알레르기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하고 있으나 아직은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레르기 전문의사와 상담 후에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식품알레르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환자와 보호자 교육이 중요합니다. 원인 식품 회피의 기본 원칙, 환자별 상세 관리 방법, 아나필락시스를 인지하고 자가 주사용 에피네프린을 포함한 응급 대처 방법을 반복해서 교육받아야 합니다. 공산품을 섭취할 때는 알레르기식품 표시를 꼭 확인해야 하며, 식품표시제를 읽는 방법도 배워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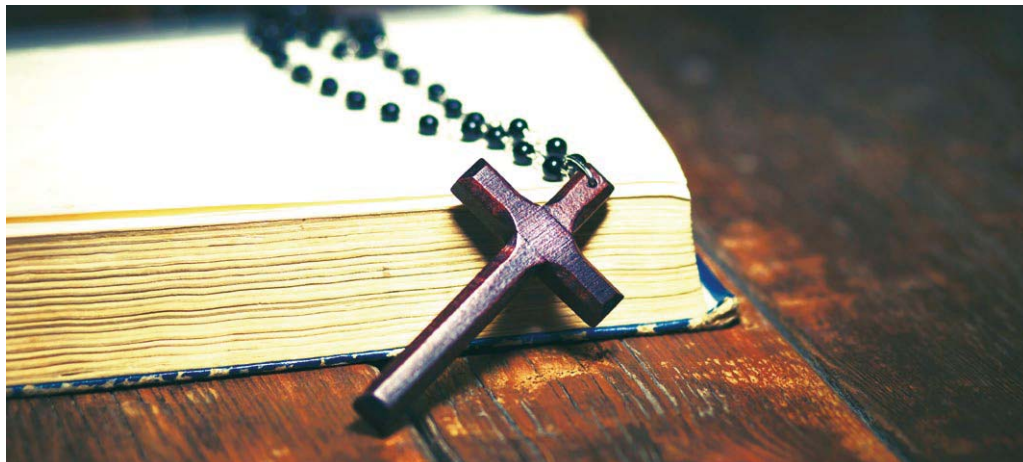
임상에서 식품아나필락시스 환자들은 원인 식품을 모르고서 당하는 경우보다 원인을 알고 있지만 환자와 보호자들이 부주의해서 당하는 경우가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하고 또 교육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인 것 같습니다. 예배, 말씀, 기도,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을 소홀히 여길 때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상이 예배, 말씀, 기도, 교제로 채워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만남**



임대현 집사
성남·분당교구
인하대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

죽음의 성경적 이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천국을 사모하는 자리로



지난 10월 2일부터 11월 13일까지 상담부에서 실시한 제6기 시부모&장인장모학교에서 6주 과정 ‘죽음의 성경적 이해’라는 주제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1. 왜 죽음을 생각해야 할까?

동전의 양면처럼, 태어났으면 죽는 것은 보편적 원리인데 저부터도 죽음이 내게는 멀리 있다고 생각했으며, 죽음을 떠 올리면 두려움이 엄습해 길게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로 죽음의 이해는 꼭 필요하며 성경에서 표현하는 죽음에 관해 들은 목사님의 설명으로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꼭 죽는다”라는 보편적 원리와 주어진 삶의 가치를 분명히 느끼게 하고, 초월을 향해 살게 하여 죽음 이후의 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일상을 살며,

죽음에 대비하게 만듭니다.

교육과정 중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만약 당신이 7년 후에 죽음을 맞는다면 주어진 7년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가?”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신 말씀에 수긍하여 단순한 삶을 위해 70세에 집을 팔아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상속하고 저는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사하면서 많은 것을 버리고 정리했는데 아직도 버릴 것이 많습니다. 단순하게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고 단순하게 살려고 합니다. 옷과 책을 정리해서 내가 죽은 다음에 자녀들이 뒷정리를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여 독한 관계를 이루어 친지와 아웃에 나의 마음과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성경을 공부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애쓰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런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일상을 알차게 보낸 후 잠자기 전에는 저를 성찰하며 잘못된 일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친지나 이웃에게 잘못된 일이 있으면 풀고 가려고 합니다. 일단 죽은 이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해결할 수 없고 이생에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 세상에서 매인 것을 7년 안에 다 풀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남길 유언은 잘 살아낸 나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하고, 꼭 전하고 싶은 말은 건강할 때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말은 너희와 함께해서 감사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2. 인간이 죽는 이유는 무엇일까?

창세기 1, 2장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소통하며 살아야 함에도 3장을 보면 선악과 사건을 통해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불신앙이 죄이며, 그 불신앙의 근본은 교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 우리는 죽음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실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과 해방의 길을 열어줍니다.

3. 성경이 말하는 죽음 이야기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죽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인간을 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기에 죽음 후에 하나님과 대면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합니다. 그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면합니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3:28~29)'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면서 살고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만 하면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죽음은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천국을 사모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우리는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

우리가 죽으면 그렇게 보고 싶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생을 경험하는 계기가 됩니다. 첫째 죽어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을 기다리는 상태에 있다가 마지막 날(재림의 날)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십자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산 증거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모두 부활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믿지 아니한 자는 유황불 못에 던져져 제2의 죽음을 맞는 것입니다(요한계시록 19:20).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독하지 않으면 제2의 죽음을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죽음 이후의 심판과 영생은 현재의 삶

에서 하나님을 믿어 말씀에 순종하고, 현생에서의 매듭을 풀고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격려해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결과에 따라 천국과 무저갱이 결정됩니다. 죽은 후에는 어떤 결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삶에서 이웃이나 형제에게 잘못된 것을 풀어 용서받으며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부자와 거지에 대한 이야기, 누가복음 16:19~31).

5. 부활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이날은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19)’

문을 닫았는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쁘므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누가복음 24:41~43)’

이처럼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 때 예수님처럼 되리라 생각합니다.

6.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것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고백합니다. 사랑으로 사람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면 죽음으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상담부 주관으로 열린 시부모&장인장모학교 과정을 마치고

7.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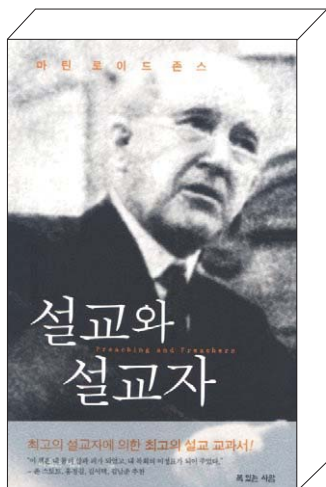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 없이 추구하고 죽음 후에도 영생하기를 원하며 서로 사랑하며 다스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휴식도 취해야 하며, 어느 때 부르실지 모르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 하루 하루 최선을 다해 자기 성찰하며 회개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행동하며 잘 살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줄이려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지속하여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소망을 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보기와 기도, 예배와 찬양,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지름길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만남**



이현우 성도
노원교구

설교와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지음 / 정근두 옮김 / 복있는 사람/2012년

책은 만남입니다. 저에게『설교와 설교자』는 소명(召命)으로 찾아왔습니다. 신학교 입학 시험 준비할 때 책을 읽은 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의심과 후회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영적침체가 찾아올 때에 성경만큼 가까이 하는 저의 묵화의 나침반 중 하나입니다. 우선『설교와 설교자』는 설교를 통해 말씀의 생명을 발현시키는 목사를 위한 책입니다. 이 책은 영국 런던 웨스터민스터 교회(Westminster Chapel)에서 30년을 설교로 섬긴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1899~1981)가 묵화를 준비하는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6주간 강의한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성도들을 위한 책이기도 합니다.『설교와 설교자』는 설교의 기술보다 설교의 의미와

가치를 깨우쳐 주는 책이라서 성도들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대할지 배우는 최고의 지침서입니다. 그러나 제가『설교와 설교자』를 소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적 수준만큼 설교자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설교와 설교자』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교회의 흥망성쇠의 지표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에 있다고 단언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설교로 세워지고 성장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며, 강단에서 명설교자들을 만나는 복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에서 설교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바른 것인지 돌아볼 필요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교회의 권위가 추락하고 영혼의 해갈(解渴)을 갈망하는 성도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에『설교와 설교자』는 분명 교회의 강단,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세우는 바른 길을 제시하는 책이라 여겨집니다.

성도님들이 이 책을 읽을 때에 설교자나 청중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체임을 자각하고, 불확실성의 시대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을 어떻게 지켜갈지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영락교회가 은혜와 생명을 선포하는 살아있는 강단을 소유한 진리의 기둥과 터로 계속 행진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남**



강승훈 목사
강북·도봉교구
상담부

진리와 말씀으로 돌아가자

데이비드 웰스의 <용기 있는 기독교>



데이비드 웰스의 『용기 있는 기독교(부흥과개혁사, 2008; 홍병룡 옮김)』는 교회 안에서는 복음주의 교회의 문제를, 세상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과 계몽주의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하게 분석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회복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책은 복음주의 교회의 위기를 진단함으로써 참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를 회복할 것을 주창하고 있다. 복음주의 교회가 세상의 철학과 심리학을 교회에 도입하면서 참 진리가 퇴색되고 말씀과 교리를 표방하지만, 그것에서 한참 멀어지고 있다는 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계몽주의와 포스트모던사상이 교회에 도입되면서,

세속주의, 합리주의, 상대주의가 교회에 적용되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의 권위보다는 자아를 통한 인간성 회복이 교회의 주 관심사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진리는 무시되고,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자아를 회복함으로써 정신과 영혼이 치유될 수 있다는 심리학적 접근이 교회에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인간의 원죄와 죄성은 부인되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인간이 주인이 되고 있는 현실에 맞닥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진정한 복음의 회복을 위해 이 책의 7장에서 제시한 진정성의 표지들을 회복하기에 힘써야한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 측면에서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오직 문화(sola cultura)’가 아니라 성경을 유일한 권위로 삼는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의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도들이 상술하고 교회에 적용했던 교리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믿고 따라야한다. 설교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 세계와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세대가 효과적으로 연결되어 진정한 영성이 꽃피도록 해야 한다. 올바른 성례 집행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완전성과 그리스도의 은혜의 본질을 믿을



정현성 집사
종로·성북교구
시온찬양대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교회에서 올바른 징계를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과 교회의 평판이 보호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며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우리는 그의 포로로 교회 성장의 도구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진리를 회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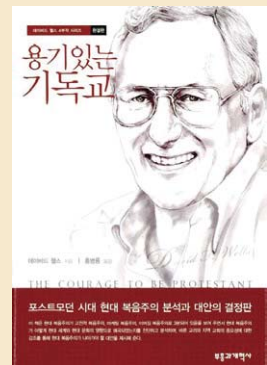
이 책은 오늘날 교회에 많은 논의거리를 던져주고 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충실하고 있는가? 신자들과 선교의 대상인 불신자 모두

에게 웰스가 제시한 진정성의 표지들을 동일하게 요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진리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가? 그러나 이러한 논의마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인정할 때 사소한 문제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진리를 믿음으로써 오늘날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용기 있는 기독교』의 저자 데이비드 웰스는 우리 시대 가장 뛰어난 기독교 지성 가운데 한 사람이다. 신학과 교회사에 대한 깊은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과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 분야를 종횡무진 넘나들며, 우리 시대의 세속적 문화와 복음주의 교회의 현실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의 솜씨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웰스의 대표작으로 문화신학 4부작으로 불리는 『신학실증』, 『거룩하신 하나님』, 『윤리실증』, 『위대하신 그리스도』가 있으며, 이 책 『용기 있는 기독교』는 4부작 시리즈의 내용들을 요약한 책이다.

현재 미국 고든 콘웰 신학교 조직신학 및 역사신학 교수로 있는 웰스는 『용기 있는 기독교』에서 현대 복음주의를 고전적 복음주의, 마케팅 복음주의, 이머징(emerging) 복음주의 진영으로 분류하고, 각 진영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아울러 현대 복음주의가 어떻게 현대 사회와 문화의 영향으로 왜곡되었는지를 진단하고 분석하며, 바른 기독교 교리와 지역 교회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를 통해 현대 복음주의가 나아가야 할 대안을 제시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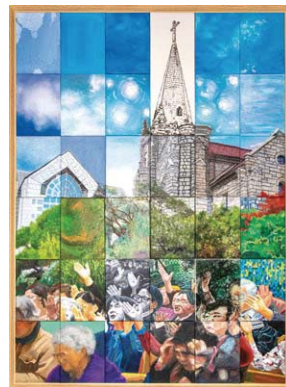
특히 이 책의 결론부에서는 복음주의 교회가 내포한 문제점들을 정리하면서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웰스는 진정성의 표지들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영역에서는 ‘성경의 충분성·교리·설교·성례·징계’가 교회에서 온전히 구현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것으로 책을 마무리하고 있다. **만남**



‘아름다운 동행’

2021 영락미술인선교회 정기전

영락미술인선교회의 2021년도 정기전시회가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로 지난 12월 4일(토)부터 30일(목)까지 50주년기념관 1층 ‘만남’ 카페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영락미술인선교회의 오프라인 전시가 한동안 중단되기도 했으나, 선교부와 행정처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열린 2021 정기전에는 모두 35명의 회원들이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회화와 서예, 조소, 도예 등 여러 미술 분야의 작가들이 주어진 은사를 통해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각자가 경험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화폭과 입체 작업에 담아냈습니다.



특별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이전에는 시도하지 않았던 합동작품(사진)이 함께 전시됩니다. 25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이 작품은 아크릴, 유화, 채색화, 서예, 유리 작업등 각자가 전공분야의 특성을 살려 각각의 장면을 완성한 후 한데 모아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작품이 표현하고자 한 주제는 ‘회복’ 입니다. 영락교회 본당의 모습과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극복하고 예배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35개의 조각으로 나눈 후 회원 각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4호 크기의 캔버스에 작업한 것을 모아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정기전시회를 통해 크리스천 미술 작품을 바라보는 성도 모두가 작가가 경험한 은혜를 누리며, 작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히 흘러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남**

제공 김갑수 집사(영락미술인선교회)

영락미술인선교회는 영락교회 성도로서 시각예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려는 선교적 사명을 가진 미술인들의 모임입니다. 매년 교회 내에서의 전시와 외부에서의 정기전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영락미술인선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며 활동하기를 원하시는 크리스천 미술인들을 기다립니다.

※ 문의 : 영락미술인선교회 forestjh@gmail.com

교회소식

news letter

교회창립 76주년 행사 열려

- 12월 5일 장로·집사 임직예배, 11월 28일 창립 76주년기념 음악예배



교회창립 76주년을 맞아 창립 이후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장로·집사 임직예배와 창립 76주년기념 음악예배 등 기념행사가 펼쳐졌다. 창립 76주년 기념주일로 드린 지난 12월 5일 김운성 위임목사는 ‘일어나는 사람들’ (마태복음 2:13~15)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영락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서, 만세 전부터 택하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배자가 되었다”며 성도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다. 교회는 1~5부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축하 떡을 나누며 감사와 기쁨의 의미를 공유했다.

이날 오후 찬양예배는 제49회 장로·제50회 집사 임직예배로 드렸다(사진). 당회장 김운성 목사의 인도로 열린 임직예배에서는 서울노회장 조건희 목사(예능교회)가 ‘하나님이 귀히 쓰는 사람’ (출애굽기 3:1~5)이란 말씀을 전했다.

다. 임직을 받은 장로 6명과 안수집사 19명은 신실한 청지기로서 맡은 사명을 다할 것을 주님과 교우들 앞에 서약했다. 당회장의 안수기도와 임직 선포 후 서울노회 중부시찰장 손윤탁 목사(남대문교회)가 권면의 말씀을 전했으며 임직자를 대표해 김병욱 장로가 교우들에게 인사말을 한 후 이철신 원로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한편 창립 76주년 기념주일로 앞서 11월 28일(주일) 찬양예배 시간에는 갈릴리찬양대 주관으로 창립 76주년기념 음악예배가 열렸다.

영상찬양으로 진행된 이날 음악예배는 ‘내 주의 보혈은’을 비롯해 우리에게 익숙한 찬양곡들을 장신대 김신웅 교수가 새롭게 편곡하고, 장신대 김진명 교수의 내레이션이 곁들여져 참석한 성도들에게 더욱 깊은 은혜를 전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장로 장립 및 집사 안수 (2021년 12월 5일 임직)

제49회 장로(6명)



김병욱



김태영



오동희



이인수



공수일



조병준

제50회 안수집사(19명)



김만석



박승택



박태용



김국진



김관용



김준섭



최정국



김용범



곽경호



남정웅



2022 향존직 선거 피택자 감사기도회



2022 향존직 선거가 지난 11월 14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장로 8명, 안수집사 19명을 선출한 가운데 11월 28일(주일) 찬양예배 후 벨엘기도실에서 선거집행위원회 주관으로 피택자 감사기도회가 열렸다. 피택자 교육설명회를 겸해 진행된 이날 기도회는 선거집행

위원장 김재완 장로의 인도로 시작하여 김운성 위임목사의 말씀, 피택자 교육일정 오리엔테이션, 향존직 선거 방식 관련 설문조사의 순으로 진행됐다. ‘용서받은 망설임(출애굽기 4:10~17)’이란 말씀을 전한 김운성 목사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거룩한 망설임’의 겸손한 자세로 섬기길 바란다”며 피택자들을 권면했다. 피택자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소정의 교육과 봉사참여, 경건훈련을 마친 후 교회창립 77주년 기념주일인 2022년 12월 4일 임직을 받게 된다.

취재 임대현 편집위원 사진 원종석 기자

전도대로 365 '예배로의 초대'



지난 10월 17일(주일)부터 진행된 <2021 전도대로 365> 캠페인을 마무리하는 '예배로의 초대'가 추수감사주일이었던 11월 21일 1~5부 예배에 걸쳐 열렸다. 전도 캠페인 기간 기도하면서 작성한 전도대상자들을 주일예배에 초대한 '예배로의 초대' 행사는 대상자와 함께 현장예배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예배에서 김운성 위임목사는 '낳는 사람들' (마태복음 1:12~16)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전도대로 365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리기를 바란다"며 전도대상자들을 축복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생명의 끈을 놓지 않고 인내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현장예배에는 58명의 전도대상자가 참석했고, 온라인 예배에는 다섯 가정이 참여했다.

한편 전도부는 매월 둘째 주일 <전도대로 365>부스를 운영한다. 부스에서는 전도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도지원과 문자 지원, 전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유튜브에서 '영락교회 전도부'를 검색하면 김운성 목사의 3분 메시지 영상을 볼 수 있다.

취재 유혜정 편집위원 사진 원종석 기자

교역자 동정

박재현 목사 사임, 일산동안교회 담임목사로 부임



목회행정과 강남교구를 맡아 사역해오던 박재현 목사가 지난 12월 12일자로 우리 교회를 사임하고 일산동안교회(경기도 고양시 백석동 소재)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2014년 우리 교회 부목사로 부임한 박재현 목사는 그동안 용인·화성교구와 상담부를 시작으로 마포·영등포교구, 강남교구와 홍보출판부, 친교부, 사회봉사부, 목회행정 등을 맡아 사역해왔다. 박 목사는 12월 12일 오후 찬양예배 시간에 고린도전서 15:9~11절을 본문 삼아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의 이임 설교를 전했다.

일산동안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www.isdongan.or.kr

이임교역자 (2021년 10월 21일 목사 안수)



조익천(2019)
서초교구
목양부



신중권(2019)
종로·성북교구
평생대학



김성광(2019)
관악·동작·금천교구
청년부



임민국(2019)
청년부
교육부(교육행정)



이효준(2019)
강동·송파교구
예배위원회



이형진(2019)
강서·구로·양천교구
상담부



김우람(2019)
선교부



최정규(2019)
안양·수원교구
예배위원회(기도)



박성울(2019)
대학부



백현준(2019)
노원교구
고등부



노진석(2019)
강북·도봉교구
제자양육훈련부



유태완(2020)
용인·화성교구
사회봉사부



윤형배(2020)
인천교구
영락수련원

※ 성명 옆 괄호는 본 교회 부임 연도
아래 기재 내용은 2021년도 담당교구 및 부서

은퇴항존직 (2021년 12월 26일 은퇴)

장로



나선환



김명철



장병건



김종복

안수집사



김명진



최종수



김명철



계모세

교우 동정

정천우 장로, 2021 사학육성공로 봉황장 수상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사진은 지난 12월 8일(수) 여의도 사립초중고협회 사무실에서 열린 시상식(왼쪽에서 두 번째가 정천우 장로).

학교법인 보성학원 이사장인 정천우 장로가 최근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사립초중고협회, 회장 윤남훈)가 수여하는 <2021 사학육성공로 봉황장> 수상자로 선정됐다. 봉황장은 사립초중고협회가 사학육성 공로자에게 수여하는 포상 가운데 최고상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6년부터 보성학원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 장로는 사립학교 발전에

영락교회 은퇴제직상조회 신규가입 안내

주님의 몸 된 영락교회를 위해 오랜 세월 헌신 봉사하고 은퇴하시는 제직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본 상조회에서는 은퇴하시는 제직이 상부상조하여 노후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을 임기로 은퇴하시는 제직만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본 상조회 회원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 **가입 자격** : 2021년 12월 31일자로 은퇴하는 제직(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 **가입 기간** : 2022년 1월 2일(주일) ~ 12월 25일(주일)

📌 **가입 장소** : 50주년기념관 1층 회비 수납장소(은퇴제직상조회)

📌 **가입 절차** : 배부된 가입원서에 교회 교적부와 일치하도록 작성 및 날인하여 수납창구에 제출(가입원서는 수납창구에도 비치되어 있음).

참고사항

① 회원자격:〈상조회 회칙 제5조 1항〉

본회는 영락교회에서 제직으로 헌신 봉사하다가 정년이 되어 은퇴하신 교역자 및 장로(협동포함), 안수집사, 권사, 남녀 서리집사로서 은퇴 후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성하여 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구성한다.

② 회비 납부의무:〈상조회 회칙 제8조 2항〉

- 가입비 : 10만 원(1회만 납부)
- 연회비 : 신규가입 시 2만 원 그 후 매년 1만 원
- 부조금 : 정회원 별세 시마다 1만 원

③ 수혜사항:〈상조회 회칙 제9조 1항, 8조 2항〉

- 부의금 : 6,000,000원 지급 (수권자에게 지급)
- 회원 가입 후 만 17년(204개월) 이후부터는 부조금(1만 원) 납부 면제함



기타 문의 사항은 영락교회 은퇴제직상조회 수납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08시~16시까지 ☎ 02)2280-0338, 간사: 권철 안수집사 010-5339-5861〉

1월 목회력

1일(토)	신년예배
3일(월)~5일(수)	신년기도회
8일(토)	교육부 신년교사기도회
9일(주일)	주일예배 성찬(1~5부), 제직회
16일(주일)	고등부·대학부·청년부·자유인·국제예배 성찬, 여전도회 헌신예배, 심방준비회
23일(주일)	사회봉사주일

※ 1월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김운재의
함께해보아요

지난호 정답 미로찾기



동양에서 세사왕의 미로축 환공과 통환과 통환을 가지고 세사왕의 미로축 환공을 찾아주세요. 길을 찾아주세요.

2022년 1월호 통권 575호

발행 2022. 1. 1.

발행인 김운재

편집인 양지청

편집위원 차영수 김갑수 김경옥 김창섭
박선이 유혜정 이준영 임대현
강덕진 정용성

청년위원 김효진 나광호 안동현 안하운
우대권 이현지 하예훈

교열 계영희 이광미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design D.I

스마트한 e세상, 웹진 만남



인터넷 브라우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www.youngnakmn.net



월간「만남」웹진



월간「만남」앱
안드로이드용



월간「만남」앱
아이폰용

김윤재의 함께해보아요

거울그림찾기

주일 학교에 가려고 준비중인 영이와 락이 남매가 거울을 보고 있네요
거울에 비친 모습을 아래 보기 중에서 찾아주세요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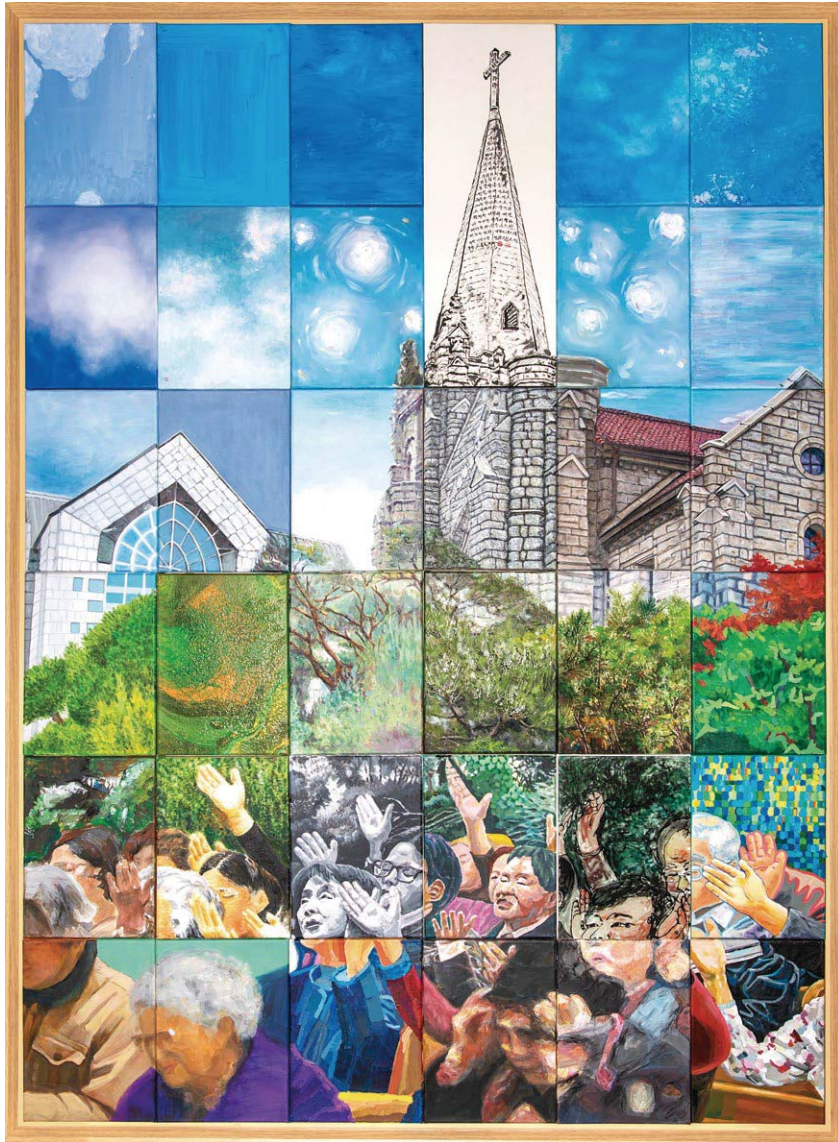


4



영락화랑

아름다운 동행



영락미술인선교회 공동작품(작가 25명 참여), Mixed Media, 151×207cm, 2021년

만군의 하나님이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시편 80:7)